

서울특별시 보건소 간호사의 인력분포와 보건사업 제공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모자보건 가족계획 및 결핵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박신애 · 양순옥 · 윤순영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62년 9월 보건소법의 제정으로 전국 시군에 법정보건소를¹⁾ 가지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지방보건의료망 확충 계획에 크게 힘입어 1987년 현재 전국에 225개의 보건소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일선행정기구로서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과거 어느때 보다도 보건봉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세계적 대도시로 등장한 서울특별시는 고도성장의 기본요건중의 하나인 시민 보건관리를 위해 현재 17개 보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9백만을 넘는 서울시민의 건강을 돌보기에는 그 규모 및 시설의 빈약함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⁴⁾ 더욱이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운영상의 난점이 있으며 그 중 특히 보건간호사업은 사업범위와 업무량 및 요원의 수에 있어서 보건분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건간호사의 관리하는 바로 보건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건사업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건간호사업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겠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보건간호사의 활동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보건간호 인력 수급과 근무조건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결핵실 모성실 영유아실 가족계획실 간호사와 간호사 1인당 관리하고 있는 분야별 사업에 대한 관리상황을 밝히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보건간호사 1인당 담당하고 있는 대상인구수를 파악한다.

2) 1985년도 구역별 보건간호사 1인당 대상인구수를 파악한다.

3) 1985년도 사업분야별 보건간호사 1인당 대상자수를 파악한다.

4) 1985년도 사업분야별 보건간호사 1인당 관리된 수를 파악한다.

5) 1985년도 사업분야별 대상자에 대한 관리율을 파악한다.

6) 1984년도 구역별 사업분야별 보건간호사 1인당 대상자수를 파악한다.

7) 1984년도 구역별 사업분야별 보건간호사 1인당 관리된 수를 파악한다.

8) 1984년도 구역별 사업분야별 대상자에 대한 관리율을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보건간호인력

보건간호인력은 직접간호제공인력과 반직접간호제공 및 간접간호제공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건소 근무 간호인력은 법적으로는 지방간호사란 명칭으로 단일화 되어 있고 업무 활동면에서는 직접적인 간호제공과 교육을 하는 직접간호제공인력과 준비 조직 설치 및 직접주민 봉사자를 지도 감독하는 반직접 간호제공 인력으로 구분되어 직위는 계장 주임 및 서무를 맡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간호와 반직접간호제공인력을 모두 포괄하여 보건간호인력이라고 구명하였다.

2) 모성보건대상자 및 관리된(모성보건) 대상자

모성보건 대상자란 20~49세 가입여성 인구를 말하며 관리된 모성보건 대상자란 1회 이상 보건소에 등록관리되어 서울특별시 통계연보에 연말 현재수로 기재된 대상자로 규정하였다.^{11 12)}

3) 영유아 보건 대상자 및 관리된(영유아 보건) 대상자

영유아란 구체적으로 0세 인구를 영아, 1~3세 인구를 유아(toddler), 3~6세 인구를 학령전기(preschool child)로 분류하나 보건소에서 영유아란 출생에서 부터 취학전 즉 0~6세 미만 아동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연보에 의해 자료수집이 가능한 0~4세 인구를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관리된 영유아란 보건소에서 1회 이상 등록 관리된 연말 현재수를 대상으로 하였다.^{11 12)}

4) 결핵관리대상자 및 관리된(결핵관리) 대상자

결핵관리대상자란 결핵 감염이 전 연령에 걸쳐 가능하므로 전 인구가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좀더 실제적인 대상자를 산출하기 위해 인구수에 결핵유병률을 곱한 수를 그 대상자로 규정하였다. 관리된 결핵관리 대상자란 결핵관리 내용을 크게 BCG접종, 객담, X-선검진 및 등록한자 치

료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상자를 산출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보건사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객담검사 양성 음성자와 요관찰자를 합한 연말 현재수로 규정하였다.^{11 12)}

5) 가족계획 대상자 및 관리된(가족계획) 대상자

가족계획 대상자란 남녀 모두 포함되나 본 연구에서는 20~49세 여성으로 규정하였다. 관리된 대상자는 가족계획사업 현황 자료에서는 정관, 난관 수술을 받은자, 자궁내 장치술, 콘돔, 먹는 피임약 및 월경조절시술한 대상을 포함한 수로 채택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월경조절 시술 대상자는 제외시켰다.^{11 12)}

II. 연구자료 및 분석

연구자료는 기존자료로서 보건사회부 통계연보^{2 8-10)}, 서울통계연보^{11 12)}, 한국통계년감^{13 16)}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제1권 전수조사 12-2 서울특별시”와 “1984년 상주인구조사보고”¹⁹⁾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속보(2% 포본추출 집계 결과)와 보건사회부 보건국 가족보건과와 만성병과에 보존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고 1985년 보건간호사 수는 관계자와 직접 면담하여 추적 수집 분석하였다.

1. 연구의 제한점

조사년도는 보건소법이 개정공포되어 1983년에 가족계획요원 2,059명과 결핵관리요원 189명이 배치된 해부터 수집분석하려 하였으나 모자보건요원 152명이 1967년 배치되었고 첫째, 통계연보에서 분야별 간호사 수가 전부 파악될 수 있는 것은 1987년도부터였고 둘째, 사업대상자를 규명할 수 있는 연령별 대상자 파악이 5년 간격의 인구 센서스와 간이조사가 실시된 연도에만 파악될 수 있었고 셋째, 보건간호사 수는 통계연보 자료와 실제 관찰한 자료와 차이가 커서

62 보건간호편

그동안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관리상태를 파악한
다는 것은 너무 오차가 크다고 사료되어 질문조
사가 가능한 연도에 파악된 인력자료를 중심으
로 즉 1985년도 자료만으로 관리상태를 분석하
였다.

Ⅲ. 분석 결과

1. 연도별 보건간호사 1인당 인구수

표1은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보건간호사 1인
당 인구수이다. 1978년부터 1985년 사이에 인

구와 보건간호사 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보건
간호사 1인당 인구수는 1978년 53,2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해인 1979년 91명이 증가하
며 대상 인구수는 34,092.5명으로 감소하였고
다시 1981년 208명의 간호사가 증가하여 대상
인구수는 19,453명으로 현저히 감소하였고 19
81년 이후는 간호사대 대상자수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고 1984년도에는 간호사가 31명 증가
하여 대상인구가 191,919.1명으로 감소하였다.

표1. 연도별 보건간호사 1인당 인구수

| 연 도 | 총 인 구 수 | 보 건 간 호 사 수 | 보 건 간 호 사 1인당 인구수 |
|------|------------|-------------|-------------------|
| 1978 | 7,823,195 | 147 | 53,219.0 |
| 1979 | 8,114,021 | 238 | 34,092.5 |
| 1980 | 8,364,379 | 238 | 35,144.4 |
| 1981 | 8,676,037 | 446 | 19,453.0 |
| 1982 | 8,916,481 | 446 | 19,992.1 |
| 1983 | 9,204,344 | 446 | 20,637.5 |
| 1984 | 9,501,413 | 477 | 19,919.1 |
| 1985 | 9,645,932 | 477 | 20,222.1 |
| 계 | 70,245,802 | 2,915 | 24,098.0 |

2. 구역별 보건간호사 1인당 인구수

(1985년)

표2는 1985년도 구역별 보건간호사 1인당 인
구수이다. 인구는 동대문구가 942,956명으로 가

장 많고 다음이 강동구 886,447명, 도봉구 479,
147명의 순이며 간호사 1인당 인구수는 강동
구가 30,567.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동대문
구 28,574.4명, 강남구 27,579.4명의 순이다.

표 2. 구역별 보건간호사 1인당 인구수 (1985년)

| 구역 | 인구수 | 보건간호사 수 | 보건간호사 1인당 인구수 |
|-----|-----------|---------|---------------|
| 종로 | 266,183 | 25 | 10,647.3 |
| 중구 | 212,235 | 25 | 8,489.4 |
| 용산 | 326,235 | 24 | 13,617.8 |
| 성동 | 751,528 | 31 | 24,242.8 |
| 대문 | 942,856 | 33 | 28,574.4 |
| 성북 | 583,993 | 30 | 19,466.4 |
| 도봉 | 847,147 | 32 | 26,773.3 |
| 은평 | 442,084 | 27 | 16,373.5 |
| 서대문 | 404,766 | 26 | 15,567.9 |
| 마포 | 442,056 | 26 | 17,002.2 |
| 강서 | 674,197 | 29 | 23,248.2 |
| 구로 | 684,188 | 30 | 22,806.3 |
| 영등포 | 446,755 | 27 | 16,546.5 |
| 동작 | 406,036 | 27 | 15,038.4 |
| 관악 | 556,311 | 28 | 19,868.3 |
| 강남 | 772,223 | 28 | 27,579.4 |
| 강동 | 886,447 | 29 | 30,567.1 |
| 계 | 9,645,932 | 477 | 20,222.1 |

3. 가족계획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 관리된 수 및 율

인당 대상자수는 15,203.1명이었으며, 관리된 수는 3,908.3명이었다.

표 3-1은 1985년 가족계획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 및 관리된 수이다. 가족계획 간호사 1

관리율은 표 3-2와 같이 629,242명 25.7%였다.

표 3-1. 가족계획 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 관리된 수 (1985년)

| 특성 | 가족계획간호사 | 대상자 | 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 | 총 관리된 수 | 간호사 1인당 관리된 수 |
|----|---------|-----------|---------------|---------|---------------|
| 수 | 161 | 2,447,697 | 15,203.1 | 629,242 | 3,908.3 |

표 3-2. 가족계획 대상자에 대한 관리율 (1985년)

| 특성 | 대상자 수 | 총 관리된 수 | 관리율 (%) |
|-----|-----------|---------|---------|
| 수 율 | 2,447,697 | 629,242 | 25.7 |

64 보건간호면

4. 모자보건 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 및 관리된 수

표 4-1은 1985년도 모자보건 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 및 관리된 수인데 모자보건간호사 1

인당 대상자 수는 38,494.2명이고 관리된 수는 3,855.4명이다.

관리율은 표 4-2와 같이 327,713명 10.0%였다.

표 4-1. 모자보건 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 관리된 수 (1985년)

| 특 성 | 모자보건 간호사 | 대 상 자 | 총 관리된 수 | 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 | 간호사 1인당 관리된 수 |
|-----|----------|-----------|---------|---------------|---------------|
| 수 | 85 | 3,272,008 | 327,713 | 38,494.2 | 3,855.4 |

표 4-2. 모자보건 대상자에 대한 관리율 (1985년)

| | 대 상 자 수 | 총 관리된 수 | 관 리 율 (%) |
|-------|-----------|---------|-----------|
| 수 와 율 | 3,272,008 | 327,713 | 10.0 |

5. 결핵관리 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 관리된 수 및 관리율

표 5-1은 1985년 결핵관리 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 및 관리된 수로서 결핵관리 간호사 1

인당 대상자 수는 2,526.3명이었고 관리된 수는 242.9명이었다.

관리율은 표 5-2와 같이 20,404명 9.6%이었다.

표 5-1. 결핵관리 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 및 관리된 수 (1985년)

| 특 성 | 결핵보건간호사 | 대 상 자 | 관리된 수 | 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 | 간호사 1인당 관리된 수 |
|-----|---------|---------|--------|---------------|---------------|
| 수 | 84 | 212,211 | 20,404 | 2,526.3 | 242.9 |

표 5-2. 결핵관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율 (1985년)

| 특 성 | 대 상 수 | 총 관리된 수 | 관 리 율 (%) |
|-------|---------|---------|-----------|
| 수 와 율 | 212,211 | 20,404 | 9.6 |

6-1. 구역별 사업분야별 보건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 (1984년)

표 6-1은 1984년도 구역별 사업분야별 보건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이다. 가족계획사업은간

호사 1인당 대상자 수는 강동구가 20,51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강남구 20,560.6명 순이었고 중구가 8,963.2명으로 가장 적었다. 모자보건사업은 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는 동대

문구가 64,14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강동구 60,792.4명 순이었고 중구가 13,801명으로 가장 적었다. 결핵관리사업은 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는 강남구가 4,025.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강동구 3,650.6명, 성동구 3,277.6명 순이었고 서대문구가 1,313.4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6-1. 구역별, 사업분야별 보건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 (1984년)

| 구역 | 사업 수 | 가족계획 | | | 모자보건 | | | 결핵 | | |
|----|------|-----------|-----|--------------|-----------|-----|--------------|---------|-----|--------------|
| | | 대상자 | 간호사 | 간호사1인당 대상자 수 | 대상자 | 간호사 | 간호사1인당 대상자 수 | 대상자 | 간호사 | 간호사1인당 대상자 수 |
| 총 | 로 | 68,827 | 6 | 11,471.2 | 87,448 | 5 | 17,489.6 | 5,984 | 2+1 | 1,994.7 |
| 중 | 구 | 53,779 | 6 | 8,963.2 | 69,005 | 5 | 13,801 | 4,705 | 2+0 | 2,352.5 |
| 용 | 산 | 86,347 | 6 | 14,391.2 | 111,724 | 5 | 22,344.8 | 7,372 | 2+3 | 1,474.4 |
| 성 | 동 | 186,240 | 13 | 14,326.2 | 254,339 | 5 | 50,867.8 | 16,388 | 2+3 | 3,277.6 |
| 동 | 대 | 235,740 | 15 | 15,716 | 320,747 | 5 | 64,149.4 | 20,540 | 2+5 | 2,934.3 |
| 성 | 북 | 146,799 | 11 | 13,345.4 | 195,135 | 5 | 39,027 | 12,908 | 2+4 | 2,151.3 |
| 도 | 봉 | 205,091 | 14 | 14,649.4 | 283,063 | 5 | 56,162.6 | 18,387 | 2+5 | 2,626.7 |
| 은 | 평 | 106,652 | 8 | 13,331.5 | 142,488 | 5 | 28,497.6 | 9,509 | 2+2 | 2,377.3 |
| 서 | 대 | 105,516 | 8 | 13,189.5 | 136,729 | 5 | 27,345.8 | 9,194 | 2+5 | 1,313.4 |
| 마 | 포 | 112,249 | 8 | 14,031.1 | 143,095 | 5 | 29,619 | 9,693 | 2+2 | 2,423.3 |
| 강 | 서 | 167,499 | 10 | 16,749.9 | 245,241 | 5 | 49,048.2 | 14,658 | 2+4 | 2,443 |
| 구 | 로 | 168,526 | 11 | 15,320.5 | 238,998 | 5 | 47,799.6 | 14,603 | 2+3 | 2,920.6 |
| 영 | 등 | 112,535 | 8 | 14,066.9 | 152,028 | 5 | 30,405.6 | 9,790 | 2+3 | 1,958 |
| 동 | 작 | 101,179 | 8 | 12,647.4 | 135,599 | 5 | 27,119.8 | 8,909 | 2+2 | 2,227.3 |
| 관 | 악 | 133,125 | 10 | 13,312.5 | 183,638 | 5 | 36,727.6 | 12,037 | 2+3 | 2,407.4 |
| 강 | 남 | 185,045 | 9 | 20,560.6 | 246,994 | 5 | 49,398.8 | 16,101 | 2+2 | 4,025.3 |
| 강 | 동 | 208,156 | 10 | 20,815.6 | 303,962 | 5 | 60,792.4 | 18,253 | 2+3 | 3,650.6 |
| 계 | | 2,383,305 | 161 | 14,803.1 | 3,255,233 | 85 | 38,296.9 | 209,031 | 84 | 2,488.5 |

6-2. 구역별 사업분야별 보건간호사 1인당 관리된 수

표 6-2는 1984년도 구역별 사업분야별 보건간호사 1인당 관리된 수이다.

가족계획사업은 간호사 1인당 관리된 수는 중구가 5,0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동작구 4,408.4명 순이었고 마포구가 3,574.1명으로 가장 적었다. 모자보건의 경우 간호사 1인당 관

리된 수는 도봉구가 89.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강동구 5,421.4명, 동대문구 5,150.8명 순이었고, 결핵관리사업은 간호사 1인당 관리된 수는 중구가 48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 434.4명, 구로구 420.6명 순이었으며 용산구가 197.2명으로 가장 낮아 지역별 차이가 컸다.

66 보건간호편

표 6-2. 구역별, 사업분야별 보건간호사 1인당 관리된 수 (1984년)

| 구역 | 가족계획 | | | 모자보건 | | | 결핵 | | |
|-------|---------|-----|--------------|---------|-----|--------------|--------|-----|--------------|
| | 관리된 수 | 간호사 | 간호사1인당 관리된 수 | 관리된 수 | 간호사 | 간호사1인당 관리된 수 | 관리된 수 | 간호사 | 간호사1인당 관리된 수 |
| 총 로 | 23,850 | 6 | 3.975 | 8,916 | 5 | 1,783.2 | 814 | 2+1 | 271.3 |
| 중 구 | 30,192 | 6 | 5,032 | 5,428 | 5 | 1,085.6 | 973 | 2+0 | 486.5 |
| 용 산 | 22,778 | 6 | 3,796.3 | 22,459 | 5 | 2,491.8 | 986 | 2+3 | 197.2 |
| 성 동 | 49,431 | 13 | 3,802.4 | 20,691 | 5 | 4,138.2 | 1,925 | 2+3 | 385 |
| 동 대 문 | 61,405 | 15 | 4,093.7 | 25,754 | 5 | 5,150.8 | 2,396 | 2+5 | 342.3 |
| 성 북 | 46,093 | 11 | 4,190.3 | 22,008 | 5 | 4,401.6 | 1,871 | 2+4 | 311.8 |
| 도 봉 | 53,324 | 14 | 3,808.9 | 44,540 | 5 | 8,908 | 2,600 | 2+5 | 371.4 |
| 은 평 | 30,445 | 8 | 3,805.6 | 13,011 | 5 | 2,602.2 | 1,167 | 2+2 | 291.8 |
| 서 대 문 | 33,942 | 8 | 4,242.8 | 10,806 | 5 | 2,161.2 | 1,416 | 2+5 | 202.3 |
| 마 포 | 28,593 | 8 | 3,574.1 | 11,297 | 5 | 2,259.4 | 1,552 | 2+2 | 388 |
| 강 서 | 41,765 | 10 | 4,176.5 | 14,126 | 5 | 2,825.2 | 2,015 | 2+4 | 335.8 |
| 구 로 | 44,141 | 11 | 4,012.8 | 20,482 | 5 | 4,096.4 | 2,103 | 2+3 | 420.6 |
| 영 등 포 | 29,741 | 8 | 3,717.6 | 14,633 | 5 | 2,926.6 | 1,352 | 2+3 | 270.4 |
| 동 작 | 35,267 | 8 | 4,408.4 | 8,675 | 5 | 1,735 | 1,175 | 2+2 | 293.8 |
| 관 약 | 41,262 | 10 | 4,126.2 | 18,229 | 5 | 3,645.8 | 1,434 | 2+3 | 286.8 |
| 강 남 | 36,923 | 9 | 4,102.6 | 11,305 | 5 | 2,261 | 872 | 2+2 | 218 |
| 강 동 | 39,556 | 10 | 3,955.6 | 27,107 | 5 | 5,421.4 | 2,172 | 2+3 | 434.4 |
| 계 | 648,708 | 161 | 4,029.2 | 289,467 | 85 | 5,405.5 | 26,823 | 84 | 319.3 |

6-3. 구역별 사업분야별 대상자에 대한 관리율 (1984년)

표 6-3은 1984년 구역별 사업분야별 대상자에 대한 관리율이다. 가족계획 대상자 관리율은 중구가 56.1%로 타 구보다 현저하게 높았고,

그 다음이 동작구 34.9%, 종로구 34.7% 순이었다. 평균 관리율은 27.2%였다. 모자보건사업은 도봉구가 15.7%로 가장 높았으며 결핵관리사업은 중구가 20.7%로 가장 높았다.

표 6-3

구역별, 사업분야별 대상자에 대한 관리율 (1984년)

| 구역 | 가족계획 | | | 모자보건 | | | 결핵 | | |
|-----|-----------|---------|--------|-----------|---------|--------|---------|--------|--------|
| | 대상자수 | 관리된수 | 관리율(%) | 대상자수 | 관리된수 | 관리율(%) | 대상자수 | 관리된수 | 관리율(%) |
| 총로 | 68,827 | 23,850 | 34.7 | 87,448 | 8,916 | 10.2 | 5,984 | 814 | 13.6 |
| 중구 | 53,779 | 30,192 | 56.1 | 69,005 | 5,428 | 7.9 | 4,705 | 973 | 20.7 |
| 용산 | 86,347 | 22,778 | 26.4 | 111,724 | 12,459 | 11.2 | 7,372 | 986 | 13.4 |
| 성동 | 186,240 | 49,431 | 26.5 | 254,339 | 20,691 | 8.1 | 16,388 | 1,925 | 11.7 |
| 동대문 | 235,740 | 61,405 | 26.0 | 320,747 | 25,754 | 8.0 | 20,540 | 2,396 | 11.7 |
| 성북 | 146,799 | 46,093 | 31.4 | 195,135 | 22,008 | 11.3 | 12,908 | 1,871 | 14.5 |
| 도봉 | 205,091 | 53,324 | 26.0 | 283,063 | 44,540 | 15.7 | 18,387 | 2,600 | 14.1 |
| 은평 | 106,652 | 30,445 | 28.5 | 142,488 | 13,011 | 9.1 | 9,509 | 1,167 | 12.3 |
| 서대문 | 105,516 | 33,942 | 32.2 | 136,729 | 10,806 | 7.9 | 9,194 | 1,416 | 15.4 |
| 마포 | 112,249 | 28,593 | 25.5 | 148,095 | 11,297 | 7.6 | 9,693 | 1,552 | 16.0 |
| 강서 | 167,499 | 41,765 | 24.9 | 245,241 | 14,126 | 5.8 | 14,658 | 2,015 | 13.7 |
| 구로 | 168,526 | 44,141 | 26.2 | 238,998 | 20,482 | 8.6 | 14,603 | 2,015 | 14.4 |
| 영등포 | 112,535 | 29,741 | 26.4 | 152,028 | 14,633 | 9.6 | 9,790 | 1,352 | 13.8 |
| 동작 | 101,179 | 35,267 | 34.9 | 135,599 | 8,675 | 6.4 | 8,909 | 1,175 | 13.2 |
| 관악 | 133,125 | 41,262 | 31.0 | 183,638 | 18,229 | 9.9 | 12,037 | 1,434 | 11.9 |
| 강남 | 185,045 | 36,923 | 20.0 | 246,994 | 11,305 | 4.6 | 16,101 | 872 | 5.4 |
| 강동 | 208,156 | 39,556 | 19.0 | 303,962 | 27,107 | 8.9 | 18,253 | 2,172 | 11.9 |
| 계 | 2,383,305 | 648,708 | 27.2 | 3,255,233 | 289,467 | 8.9 | 209,031 | 26,823 | 12.8 |

IV. 고찰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인구수 및 보건간호사수는 1978년 이후로 각각 증가추세에 있으나 보건간호사 1인당 인구수는 1978년에 비해 1979년 현저히 감소하였고 다시 1981년에 감소하였다가 그후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어 평균 인구수는 24,098명이었다.

즉 이와 같이 1978년에서 1979년 91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단위인 구(區)가 13개구에서 17개구로 증설되므로서 증가된 것이었다. 1981년 218명이 대폭 증가된 것은 임시직 가족계획요원이 정규직화 하므로서 증가

된 것이므로 실질적 증가로는 볼 수 없으나 간호사의 처우개선의 하나로 고려된다고 하겠다. 또한 1984년 31명의 증가는 강남시립병원이 지방공사 강남병원으로 변경되므로서 공무원으로 그대로 재입하기 원하는 간호사 일부가 기존 보건소에 배치되므로서 보건소 간호인력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보건간호사 증가요인은 보건관리를 효율적 수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증가와 개편에 의한 사항이었다고 고찰된다. 공공조직이나 사조직을 막론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주체는 조직의 구성원인 인력이며 조직의 구성원인 인력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그 조직이 지향하고자 하

68 보건간호편

는 목표의 효율적인 도달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조직의 구성원인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게 되며 또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³⁾ 정부는 국민 모두의 적정수준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를 설치하고 질병 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중추적 인력으로 보건간호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보건간호인력은 다른 보건분야 인력들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건소 간호사의 관리는 바로 보건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했다. 따라서 보건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적정수의 보건간호인력을 산출하고 확보하는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되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된다.

구역별 보건간호사 1인당 인구수는 강동구가 30,56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 동대문구 순이었으며, 중구가 8,489명으로 가장 적어 구역별 인구수의 차가 컸다. 따라서 인력배치에는 인구 밀도, 지역별 주민의 보건요구도 의료기관 이용 상태,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하는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가족계획 간호사 1인당 관리된 수는 3,908명이고 대상자 중 관리된 율은 25.7%이었다. 모자보건 간호사 1인당 관리된 율은 10.0%이었다. 결핵관리 간호사 1인당 관리된 수는 242.9명이었고 대상자 중 관리율은 9.6%이었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리율이 전체적으로 낮는데 이는 첫째, 보건소 이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군과 둘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의료관리를 받지 않는 군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WHO에서 정의하는 일차보건의료 확보의 개념에 입각해서 주민의 이용성, 수용성, 지불능력 및 자립성을 고려하여 간호사의 관리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하여 의료의 적정화를 기할 것이냐 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간호인력 산출계획을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하겠다. 한편 각 사업의 관리된 수가 보건사회부 통계연보에 나타난 수치인 바 자료수집과정 및

기록과정에서 정확성이 심히 염려되는 사항인 바 구체적 분석과정을 생략하였다.

구역별 사업분야별 보건간호사 1인당 관리된 수는 가족계획사업에서 적게는 3,547명에서 많게는 5,032명으로 약 1,500명의 차이가 있었다. 모자보건사업에서는 적게는 1,085명, 많게는 8,908명이었다. 구역별 간호사 1인당 관리된 수의 차가 7,000명 이상이였다. 결핵관리사업에서는 적게는 197명, 많게는 486.5명으로 289명의 차이가 있었다. 구역별, 사업분야별 관리율의 차이는 대상자 색출의 어려움과 간호사 개인의 활동능력의 차이라고 고려된다. 따라서 좀더 정확한 자료하에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보건사업관리의 적정화를 기해야 하며, 아울러 형식 보고 위주에서 탈피하고 보다 질적이고 전문적 사업을 하도록 적정인원 확보방안과 아울러 감독 및 지원체제를 확보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1985년부터 군단위 이하에서 시도되고 있는 통합보건사업 도입방안이 서울특별시에서도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V. 요약 및 결론

기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1978년 이후 서울특별시 17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본 보건간호사의 관리영역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보건간호사 1인당 인구수 : 보건간호사 1인당 인구수는 1979, 1981년에 현저히 감소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보건소수의 증가와 해당제도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2. 구역별 보건간호사 1인당 인구수 (1985년) : 구역별 보건간호사 1인당 인구수는 강동구가 30,56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8,489명으로 가장 작아 구별 인구수의 차가 컸다.
3. 가족계획사업 (1985년) : 가족계획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는 15,203.1명이었고 관리된

수는 3,908.3명이었으며 대상자 중 관리율은 25.7%였다.

4. 모자보건사업(1985년): 모자보건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는 38,494.2명이었고 관리된 수는 3,853.4명이며 관리율은 10.0%였다.

5. 결핵관리사업(1985년): 결핵관리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는 2,526.3명이며 관리된 수는 242.9명이고 대상자에 대한 관리율은 9.6%였다.

6. 구역별 사업분야별 보건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1984년): 구역별, 사업분야별 보건간호사 1인당 대상자 수를 보면 가족계획은 강남구가 20,815.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강동구 20,560.6명 순이었다. 모자보건사업은 동대문구가 64,14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강동구 60,792.4명이었다. 결핵관리사업은 강남구가 4,025.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강동구 3,650.6명 순이었다.

7. 구역별 사업분야별 보건간호사 1인당 관리된 수(1984년): 간호사 1인당 관리된 수를 볼 때 가족계획은 중구가 5,0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구가 3,574.1명으로 가장 적었다. 모자보건사업은 도봉구 8,908명, 강동구 5,421.4명 순이었다. 결핵관리는 중구 486.5명, 강동구 434.4명 순으로 구역별 차이를 보여 구역별 간호사의 활동량의 차이는 컸다.

8. 구역별, 사업분야별 대상자에 대한 관리율(1984년): 대상자 중 관리된 율은 가족계획사업은 중구가 56.1%로 가장 높았고, 모자보건사업은 도봉구가 15.7%로 가장 높았고 결핵관리율은 중구가 20.7%로 가장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보건간호사에 의한 관리율은 20%이하였다.

이상 보건간호사가 1인당 담당하고 있는 대상인구는 분야별 인구수, 구역별 대상자수, 관리된 수 및 율을 분석하여 구역별 인구수와 보건간호사 활동내용 중 인구수의 차이는 분석되었으나 자료의 성질상 활동내용의 질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건간호사 활동내용의 양과 질

을 향상시키려는 방안이 모색되어 양과 질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보다 효율적 사업제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려된다.

VI. 참고 문헌

1. 법률 제 1160 호, 보건소법 제 4 조, 1962년 9월 24일.
2.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통계연보, 1987.
3. 박노예, 의료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과 보건간호사업, 대한간호, 1986.7.8, pp. 21-25.
4. 송선대, 보건소 이용도에 관한 조사, 공중보건잡지 9(2), 1972, pp. 272~280.
5. 이동권, 서울특별시 보건소 근무 간호인력에 관한 조사연구, 공중보건잡지 9(1), 1972, pp. 29~34.
6. 김화중, 지역사회 간호학, 수문사, 1986.
7. 가족계획연구원, 인구 및 가족계획 통계자료집, 제1권, 1978, pp. 90~91, 126~127.
8.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통계연보, 1975.
9.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통계연보, 1976.
10.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통계연보, 1978.
11.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1985.
12.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1986.
13.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감, 제 30호, 1983, pp. 52~53.
14.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감, 제 31호, 1984, pp. 52~53.
15.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감, 제 32호, 1985, pp. 52~53.
16.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감, 제 33호, 1986, pp. 52~53.
17.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5 총 인구 및 주택 조사보고, 제 1권 전수조사 12~1 전

70 보건간호편

- 국, 1977, pp. 30 ~ 31.
18.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제 1권 전수조사 12~2 서울특별시, 1982, pp. 32 ~ 137.
 19.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4년도 상주인구 조사보고, 1984, pp. 47 ~ 49.
 20.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5 인구 및 주택센서스속보(2% 표본추출 집계결과), 1986, pp. 34 ~ 35.
 21. 이선자, 일부 농촌지역 보건간호원의 근무사항에 관한 조사연구, 공중보건잡지, 제 6권, 제 1호, 1969, pp. 153 ~ 163.
 22. 허정, 강남희, 한달선, 문옥륜, 보건인력의 수급에 관한 연구, 공중보건잡지, 제 8권, 제 2호, 1971.
 23. 김화중, 서울시내 보건소 보건간호원의 업무활동의 기능구조에 관한 조사연구(1970년도), 공중보건잡지, 제 7권, 제 2호, 1970, pp. 603 ~ 619.
 24. 이경식,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원 - 새로운 건강사업을 위한 간호와 시범사업, 대한간호, 제 15권, 제 2호, 1976, pp. 10 ~ 14.
 25. 이경식, 김화중, 일부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시설 이용에 관한 실태 조사, 공중보건잡지, 제 13권, 제 3호, 1976, pp. 41 ~ 52.
 26. 김상순, 도복늬, 정문숙, 일부 보건소 보건간호원의 업무 활동, 경북의대잡지, 19(2), 1978, pp. 195 ~ 205.
 27. 여옥남, 일부 지역 보건소 보건간호원의 업무활동 분석, 중앙의학, 40(6), 1981.
 28. Bara Watton Spradley, Community Health Nursing (Concepts and Practic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1.
 29. Ruth B. Freeman, Janet Heinrich,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e, Philadelphia; W.B. Saunders Company, 1981.
 30. Catherine W. Tinkham, Eleanor F. Woorhies, Community Health Nursing (Evolution and Process), New York; Appletoncentury Crofts, 1972.